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제37권 30호(가례) 2017년 6월 18일

[특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성체의 진정한 효과는
인간을 하느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의 인격과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의 일치.
단지 각 개개인을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는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형제들 사이에, 형제들과 형제들 사이에 친교를 나누어 주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한 가족이 되어 그들 사이를 한 몸으로 일치시켜 준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을 믿어야 하고,
계명을 실천에 옮겨야 하고,
형제와 불목했으면 먼저 화해를 하고 고백성사를 통하여 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런 조건 하에서 성체를 모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처럼 된다.
성체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되었으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생활해야 한다.
즉 그분의 감정, 그분의 사고방식, 그분의 사물을 보는 태도 등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며 그분의 행동방식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

-오-

petrus3@hanmail.net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7,8월 방학 미사없음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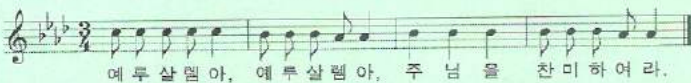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서성용 베드로,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박승효 & 박 레이몬드
	(생)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박종대 말구 & 김옥경 에우제니아
주일 학생	(연) (생) 박인규 요셉 & 박인수 프란치스코, 이정순 올리아나
주일 낮 미사	(연)박정미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이정영 야고보, 김진엽 마리아, 이재우 마티아, 김정례 수산나, 정인식 베드로, 박동욱 요셉, 연옥영혼, 변진섭 다두, 김영학 & 이사렘 & 오진베드로
	(생) 정동호 하상 바오로가정, 정애나 세라피나 & 에릭가정, 손석 스테파노, 김재훈, 이형삼 요셉, 김토마스 & 정그레이스가정, 정젤리 & 요셉 히구이제트레시 가정, 홍석인 체칠리아, 엄주현 올리아나 & 유진 토마스 아퀴나스가정, 문밥티스타수녀, 김임식 마누엘라수녀,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신명기(Deuteronomy) 8,2-3.14-16

화답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빔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주님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였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제 2독서 코린도1서(1Corinthians)10,16-17

부속가 <성체 송가 21-24>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뉘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뉘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빵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음 요한(John) 6,51-58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개인적 권유

15. 저는 이제 교회의 사회교리에 새로 추가되는 이 회칙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규모와 긴급성, 그리고 매력을 인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재 생태위기의 여러 측면을 간략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오늘날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그러한 결과가 우리 마음 깊이 다가오게 하고, 이에 따른 윤리적 영적 여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초를 마련해 주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나오는 몇 가지 원칙을 성찰하여볼 것입니다. 이는 환경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좀더 일치된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상황의 뿌리를 찾아 그 증상만이 아니라 그 가장 깊은 원인도 성찰해 볼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고유한 자리와 우리와 주변환경과 맺는 관계를 존중하는 생태론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에 비추어 저는 대화와 행동을 위한 폭넓은 제안을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든 개인이 관련되고 또 한국 제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변화가 동기 부여와 교육 과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확신으로 그리스도교 영성 체험의 보화에서 영감을 얻은 인간 발전을 위한 지침을 제시할 것입니다.

16. 비록 모든 장이 고유한 주제가 있고 구체적인 접근법을 제시하지만 바로 앞 장에서 다룬 중요한 문제들을 다시 살펴보기도 할 것입니다. 이 회칙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몇 가지 핵심 주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이들과 지구의 취약함의 긴밀한 관계,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연결 되어 있다는 확신, 기술에서 나오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힘에 대한 비판, 경제와 발전에 대한 다른 이해 방식을 찾으라는 요청, 모든 피조물의 고유한 가치, 생태계의 인간적 의미, 숨김없는 솔직한 토론의 필요성,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중대한 책임, 버리는 문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의 제안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번에 마무리되거나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 되풀이하여 논의되고 보완되어야 합니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84	284	284
봉헌	257	257	269
성체	304	304	306
파견	아빠의 청춘	아빠의 청춘	106

성체, 사랑이신 주님의 생명에로의 초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 헤맨 시간이 자그마치 사십 년입니다. 너무나도 길었던 이 시간은, 사실 백성들의 불순종이 자초한 바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약속된 땅 가나안에 정찰대를 보낸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강대한 민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정찰대의 보고를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 땅을 정찰한 사십 일, 그 날수대로,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너희는 사십 년 동안 그 췌값을 져야 한다.”(민수 14,34)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잃어버렸으니, 그것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사십 년간의 고통스런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 백성들은 극심한 배고픔과 목마름, 불뱀의 습격 등 다양한 시련을 겪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 속에서도 번번이 자신들을 구해주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결국 인간적인 힘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끝없는 용서와 자비에 기대는 것만이 자신들의 살 길임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광야에서의 사십 년은 불순종에 대한 ‘췌값’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백성들이 구원자 하느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체험한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제1독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만나를 먹게 해 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느님 사랑과 현존의 상징인 만나는, 하지만 그 자체로는 육체적인 배고픔을 잠시 덜어주는 한시적인 양식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이 만나의 참된 의미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그리스도의 성체 안에서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몸인 성체야말로 사랑이신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이 말씀 그대로, 성찬례를 통해 변화한 성체는 단순히 예수님의 상징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예수님의 실체적인 몸임을 우리 가톨릭교회는 ‘실체변화’라는 교의를 통해 믿어 고백합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정처 없이 헤매며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그대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받아 먹고 마시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운을 차려, 그대의 길을 끝까지 홀룡하게 걸어가십시오. 그 길에서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당신의 반짝이는 눈동자

처음부터 울일 많은 눈동자로 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엄마, 참 울일 많았다지.
오빠가 전사하고, 동생을 잃고, 첫아이를 앞세우고,
부모님을 여의고, 남편을 먼저 보냈네.
봄만 되면 피는 꽃에 눈물짓더니
우는 일이 다 나쁜 건 아니라며 지는 꽃에 또 눈물.
그래. 눈물에 씻겨 더 맑고 반짝이는 눈동자를 지니게 된
걸지도 몰라.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송인선 안젤라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	정인욱 아오스딩	박해경 레나타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한경숙 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요셉회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유지아 클라라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	박해경 레나타	김교복 레오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김금자 데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Happy Father's Day!

● 아버지 날을 맞아 백삼위 공동체의 모든 아버지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 수고하시는 본당의 모든 아버지들을 위하여 본당에서 점심을 제공하며 토런스 서1,3반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오창근 베드로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6월29일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 축일로 오창근 베드로 본당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 본당 수녀님께서 북미주 한인수도자 피정 참석 중 이십니다.

- 일정 : 6월22일~6월28일
- 장소 : 샌디에고 피정센터

이번 피정이 특별히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방학기간 주일 미사 조정 안내

주일학교 방학기간에 미국 신부님들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성인 미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일미사는 아침 7:30과 11:00 미사만 있습니다.

- 실시기간 7월2일(주일)~ 8월 27일(주일)까지

◆주일학교 2017 여름캠프 사전 등록

- 주제: Catholic World of Harry Potter
- 장소: Santiago Retreat Center
27912 Baker Canyon Rd. Silverado CA 92676
- 일시: 8월11일(금요일) - 8월13일(주일)

- 사전등록일 6월 18일~ 7월2일까지, 선착순 30명
- 사전등록 후 참가비용 : \$60/person

◆2017 ~ 18년도 주일학교 등록 안내

- 등록: 6월 4일~7월 2일 (주일학교 재무, 교장, 또는 사무실)
- 추가 필요서류: 세례, 첫 영성체, 전진 증명서
- 등록서 작성요령: 가정당 등록 학생이 1명일 경우 1~3 page, 등록 학생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페이지 작성.
- Check payable to: 103 SKCC
(조기등록 할인(-\$20) 혜택 있습니다: \$120, 100, 80)

◆2017-18년도 한국학교 1학기 등록 접수

- 6월 4일부터 18일까지 접수 시 20% 할인혜택 (단SAT반 제외)

◆ 백삼위 한국학교 2016~17년도 종업식

- 일시: 6월 18일 오후 1시30분~3시
- 장소: 강당

◆ 빈첸시오회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쉼터에 계시는 분들에게 전달할 깨끗한 옷을 모으고 있습니다. (6월25일까지 친교장 단상 위에 박스가 있습니다.)
- 매달 둘째 주일오후에 2시간 정도 쉼터에 음식을 운반하고 서빙 해 주실 분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댄을 소유하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아침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 연습시간 : 아침미사 전후 30분
- 연락처 : 정테레사 ☎(310)650-6993

◆ 주보 광고에 협찬해 주신 광고주들께 감사 드립니다.

매주 발행되는 백삼위 주보 광고를 후원해주시는 광고주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7월부터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됩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해 주십시오.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6월 18일 :육계장 (\$0, 토서 1,3,)
*주일학교 : 파파이스 치킨(3학년)
- 6월 25일 :미역국 (\$0, 토남 1,2)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정전헌금	주보광고비	도네이션	감사헌금
강미순 강숙경 고은별 고천용 구자운 권오상 김병주 김봉녀 김선제 김여순 김옥찬 김원호 김윤진 김일선 김정아 김종열 김주량 김 준 김형순 노혜숙 박경주 박광자 박완철 박인식 박정자 성낙호 손 석 송재훈 신경훈 안태갑 양영관 오강남 오수인 오신재 위진록 윤희동 이남현 이은경 이인석 이일길 이재용 이정분 전동훈 정임선 정훈모 최동한 최수복 홍인표 황인중 송마이클	강미순 강숙경 고천용 구자운 권오상 김선제 김윤진 김주량 김 준 노혜숙 박경주 박광자 박완철 박인식 박정자 성낙호 손 석 신경훈 안태갑 양영관 오수인 윤희동 이남현 이인석 이일길 이정분 황인중 송마이클	\$480	\$200	\$300(김주량)
주일미사헌금 : \$2,642	주일학교 등록금 : \$2,320	합계 : \$1,950		

남가주 소식

◆제 23차 남가주 선택주말 (Choice Weekend)

- 장소 : De Paul Evangelization Center
420 Date St., Montebello, CA 90640
 - 일시 : 8월 11일 (금) ~ 8월 13 일 (주일)
 - 대상 : 24 ~ 36세 사이의 남가주 가톨릭 미혼 남녀
 - 참가비 : \$300 (신부님께 본당 지원 가능 확인)
 - 신청마감: 6월 18일
 - 대표전화: 락호신 미카엘 (213) 568-5470
또는 23rdchoiceweekend@gmail.com
- 신청서는 성당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해 주십시오.

◆성 토마스 성당 하루 피정 "오늘"

- 일시: 7월 1일(토) 오전 9시~오후 4시
- 장소: 본당 토마스홀
1519 Woodworth St. San Fernando, CA91340
- 참가비 : \$15.00(간식,점심 포함)
- 신청 : 6월첫 주부터 (선착순70명)
- 문의:Clare Chung (chiaralite@gmail.com)

◆미서부지역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CLC)특강안내

- 주제 : 용서-평화의길
- 강사 : 송봉모 신부(예수회)
- 일시 : 7월1일 (토)저녁 7시~9시,
7월2일 (주일)오후2시~5시
- 장소 : 성아그네스 성당
- 신청마감 : 6월29일(목)
- 문의 : 하세실리아 ☎ (323)578-2230,(562)233-7163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 Payable to :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 문의 : 최대제 신부 ☎ (213)248-9707
아그네스성당 ☎ (323)731-4433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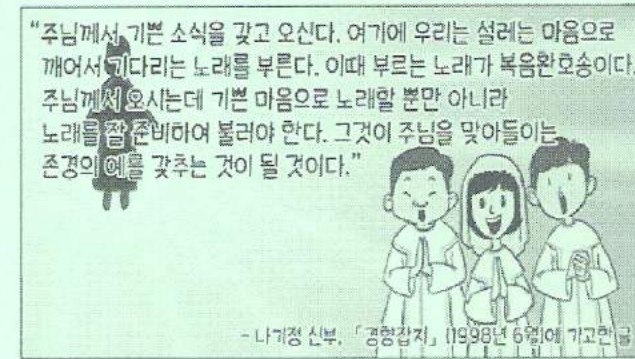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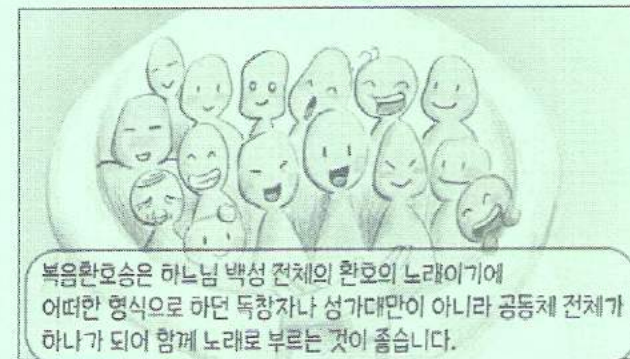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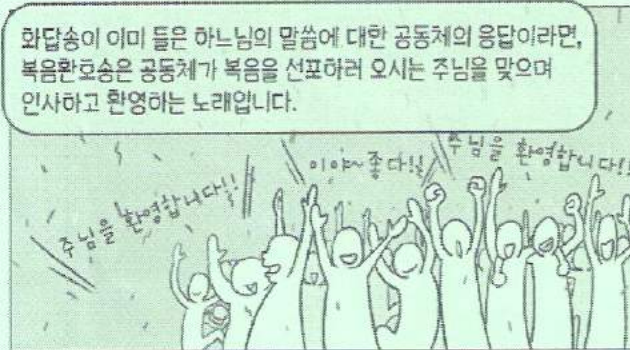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최성자 카타리나 06/07(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김찬구 요한 06/10(토) 오후6시성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이경 카타리나 06/10(토)오후8시성당
토런스 서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박인식 토마스 06/24(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이명렬 라파엘 06/10(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태은 비비안나 06/17(토)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최옥희 데레사 06/23(금)오후7시30분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여순 도미니카 06/19(월)오전11시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송미숙 미카엘라 06/17(토)오후6시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박현주 카타리나 06/11(일)오후6시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매종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유명련 마리아 06/09(금) 오후6시 성당2층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남 베네딕도 06/09(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06/10(토)오후6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윤현정 토마스 06/17 (토) 오후6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06/13(화)오전10시30분

이번 주일 단체 모임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사목회의	1시
------	----



식사 기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며 정성껏 바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식사 전과 후에 바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이 내려주신 양식에 감사드리라는 의미로 감사와 은총을 뜻하는 라틴어 그라시아(Gratia)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식사 전 기도 내용은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하나님께 준비된 음식과 음식을 나눌 사람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청하는 동시에 주신 선물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고, 물과 음식에서조차 주님께 온전히 의존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성호를 그으며 식사 기도를 정성껏 바쳐야 합니다. 이 단순한 몸짓은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기도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조용한 몸짓이 거리의 모퉁이에서 외쳐대는 몇 천 마디 말보다 더 크고 웅변적이며 강력한 신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짧은 위령 기도(慰靈禱: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 ‘연도’라고도 한다)는 식사 후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일상적으로 식사 전 기도는 잘 바치지만, 식사 후 기도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것도 하루 세 번씩이나 밥상 앞에서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것은 산 이와 죽은 이 사이에도 통공(通功, 라틴어 Communion)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는 신자들과 천국에서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이들, 그리고 연옥에서 단련 받고 있는 이들이 모두 교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기도와 희생과 선행으로 서로 도울 수 있게 결합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의’ 교리입니다. “살아 있는 모든 이에게 호의를 베풀고, 죽은 이에 대한 호의를 거두지 마라”(집회 7,33)

◆ 김지영 사무엘 신부

Quiz 본문의 단어를 참고하여 아래 빈칸을 채우세요.

그	라		아	천		공		식	
						회			라
스				의				후	
			옥		훈		령		도
		도		광				도	

6월11일 자 정답:
동정, 산이와, 보편된

「성경 속 동식물」 24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박하

유다인의 율법서에는 향료식물, 약용식물 등의 십일조를 회당에 바치는 규정이 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세세한 율법도 잘 지키면서도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예수님께서서는 눈에 보이는 율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율법까지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신다. 박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율법의 참다운 정신에서 벗어난 것을 꾸짖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 두 번 등장한다.

(마태 23,23; 루카 11,42 참조)

◆ 「성경 속 동식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썬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직급/장례계획/모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보) 310-908-8823
CA Inc.Lic.#0E75182

TIMEOUT

Café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BRE#01405988 New Star Realty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 (310)987-0736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규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합니다."  
-오 쟈미-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랜스 세플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